

YouTube, UGC¹⁾ 삭제 절차의 문제점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전자프런티어재단)와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자유인권협회)는 공동으로 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UGC(User Generated Contents)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펼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이 YouTube등과 같은 대형 콘텐츠 제공 업체들의 사용자약관이나 저작권침해 등의 부당한 이유로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례로 최근 IOC가 YouTube에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들의 UGC 동영상을 올림픽 상징(오륜기)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 등을 그 예로 들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올린 콘텐츠에 대한 삭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삭제되고 있는 많은 수의 UGC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콘텐츠 제공업체가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oogle과 같은 대형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단순히 약관이나 저작권법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앞서 보다 투명한 삭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Tube에서 콘텐츠의 삭제나 차단 절차는 동영상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이라는 표시를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표시된 동영상은 YouTube 스태프에 의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룬 동영상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차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터넷 공동체는 투명한 삭제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은 삭제통지에 대항할 수 있는 소명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부당한 게시물 삭제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o Thomas Calburn, 『Google and YouTube Need More Transparent Takedown Procedures』, InformationWeek, 2008.08.25.

1) UGC : User Generated Contents 약자로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사용자가 직접 창작하는 콘텐츠인 반면, UGC는 창작물의 변형이나 편집 및 유통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